

'채상병 특검·방송3법' 처리 속도전

민주, 법사위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11일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당론 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등 주요 당론 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할 일이

많다. 구성된 상임위원들은 즉각 가동하고 일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부터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명확히 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심의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날 과학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날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중 소위를 구성하고 이번주 내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법 심의와 관련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번 주 내에 심의되나'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선 착오없이길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못 박았다. 정 법사위원장은 의회에서도 급명간 법사위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3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쪽으로는 남겨져있지만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에 좀처럼 진척이 없는 가운데, 여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이 다.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7개 상임

위원장 후보도 내정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일방적인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이라는 건 원내대표단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일방 통과하듯이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합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전북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기원" 11일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정읍첨단산업 바이오 혁신 기반-기업 상생 발전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이학수 정읍시장, 열영선 도의원을 비롯한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산단임주기업 대표, 지역대학, 바이오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민에게 정책적 효능감 드리는 환노위 되도록 최선"

민주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에 선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안주·진안·무주)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안호영 의원을 환경노동위원회장에 인선한 배경으로는 노동·인권 변화가 출산이라는 점과 포도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 8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



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어, 전북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과 노동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대

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규원전 4기 건설 구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반(反)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서 보여지는 산업·인건권 무능·무대책,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으로 노동중소사회는 후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에 보장된 국민들의 환경권과 노동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반노동 정책에 당당히 맞서고, 국민들에게 정책적 효능감을 드리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장 당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개최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동창옥·이명진·손동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의 전 소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한 캐어 음식 활성화',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및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지양'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본회의를 휴회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한주)를 통해 주요사업장 11개소(장수 4, 산서 1, 반암 1, 장계 2, 천천 1, 계남 1, 계북 1)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에서는 17일부터 24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11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부안군 공영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7일부터 20일까지 지난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한다.

끝으로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어린꽃게 20만마리 무상방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전북자치도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1cm 이상) 20만 마리를 11월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해역에 무상 방류한다고 밝혔다.

꽃게는 주로 서해를 중심으로 수심 20~30m의 사니질 바닥에 잡입해 서식하며, 주 산란 시기는 5월부터 7월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꽃게는 성장이 빨라 이년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는 11월이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까지 성장해 어업인의 주요 어획 소득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꽃게자원의 회복을 위해 200년도부터 해마다 연안해역에 어린 꽃게를 방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3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의회,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정례회 첫날 만장일치로 20일까지 의정활동 돌입

김제시의회(의장 김명자)가 정례회 첫날,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제시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어, 주상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을 만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명시이월·사고이월 증가 지양해야"

교육위, 도교육청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023회계연도 예산 과다 불용액에 대해 질의했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충분히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분은 추경 등을 통해 반납할 것과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기 보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스마트기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낙찰차액 집행 잔액을 당초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학교 시설공사 시 계획과 착공이 늦어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매번 지적해 왔던 성 인지 예산 목표 달성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목표 달성율을 높일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금고 선정과 기금과의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도교육청 금고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별도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학과와 회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과 에듀케어 관련한 지부담 비용 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통학구 조정과 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예술인복지증진기금 마련 최선 다해달라"

문건위, 문체관광국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1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문건위 의원(군산4)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금과 집행 잔액이 상당히 높다"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아끼지 말고 사용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앞장 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가 정리부류액으로 바뀌었으나 표기엔 불납결손액으로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용어 정리를 바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분화해 세밀하게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1년 정도 준공이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사건심사에서

책임의 맡았으면 사건심사에서 나온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본심의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윤수봉 의원(원주)은 예술인복지증진기금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김경희 의원(부안)은 유사사업과 중복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요청했고, 향후 기금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철저한 관리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체육진흥기금이 소극적으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기금 확대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계획단계부터 점검"

농산경위, 미래산업국·농업기술원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군산 풍력 단지가 총 예산이 161억이 투입됐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내구연한이 지난 풍력발전기를 철거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해 유지비용과 수익성의 경제성 판단을 꼼꼼히 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저조한데 특히 결산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계부터 점검을 철저히 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출연금 집행 실적이 99.5%로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자체 평가했는데 한가 시 예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

다"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이월액, 집행잔액 등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군산2)은 "새민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차전지 관련 한중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LG화학과 SK 등 새민금 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을 미뤘고, 당초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되며, 투자 취소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과 관련 집행잔액이 많다"며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부품의 문제로 당장 수리를 할 수 없는 풍력발전소가 있다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 지원이 절반 가량의 예산을 명시이월되었는데, 과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세밀하게 예산소요액을 판단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